

설사 증상자



**‘평소보다 여러 번 묽은 변을 보게 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1.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2. 대국민 예방수칙 준수
 - 1) 30초 이상 깨끗한 물에 비누로 손씻기
 - 2) 묽은 똥여 마시기
 - 3) 음식 익혀먹기
 -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 5) 위생적으로 조리과정 준수하기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3. 증상자 및 보균자는 조리종사 금지

의료 기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시 다음과 같이
협조해 주세요!**

1. 콜레라균 검사를 실시
2. 관할 보건소에 ‘수양성 설사환자발생’ 신고
3. 법정감염병으로 의심 시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
4. 수양성 설사 환자 치료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식품 접객업소



**식품접객업자는 다음과 같은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1. 개인위생관리 철저
 - 1) 조리 전 및 배변 후 반드시 30초 이상 깨끗한 물에서 비누로 손씻기
 - 2) 설사증상자 및 보균자는 조리종사 금지
2. 위생적인 조리과정 준수
 - 1) 사용한 조리기구: 85℃ 이상 뜨거운 물로 세척 후 신속하게 건조
 - 2) 칼, 도마 등 조리기구: 생선, 고기, 채소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
3. 어패류는 취급하는 업소는 수족관 물을 자주 교체하는 등
내·외부 청결유지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수칙



질병관리본부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무엇인가요?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 또는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섭취로 인하여 복통, 설사,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1) 콜레라균은 비브리오콜레라균(V. cholerae O1 또는 V. cholerae O139) 감염에 의한 급성 설사 질환임

2) 콜레라균은 어떻게 감염될까요?

- ▷ 콜레라균에 감염된 음식(날 것 또는 설익은 어패류 등 해산물)이나 식수에 의해서 감염
- ▷ 사람 간 전파는 거의 되지 않음.

2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설사, 구토,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이 있으며, 설사의 경우 평소에 비해 수차례 많이 수양성 설사 등 무른 변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콜레라는 보통은 무증상이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구토, 물 같은 설사를 수차례 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받도록 하며, 2명 이상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진단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의료기관에서 대변검사 및 직장도말검사로 하게 됩니다.

5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위생철저 등 모든 국민, 설사증상자, 의료기관, 식품접객업소 예방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콜레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모든
국민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1. 30초 이상 깨끗한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물은 끓여 마시기
3. 음식 익혀먹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
5. 위생적으로 조리과정 준수하기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손씻기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

- ① 음식 조리 전
- ② 수유하기 전
- ③ 배변 후
- ④ 기저귀 교체 후
- ⑤ 설사증상이 있는 사람을 간호한 경우
- ⑥ 외출 후

위생적인 조리과정

- ①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조리 후 소독하기
- ② 생선, 고기, 채소 사용 조리기구는 구분하여 사용.

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고위험군인 위장질환 (위절제술을 받았거나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제산제 복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을 익혀드세요!